

# 로하스시대의 식품산업 패러다임 변화 요인(1)

김동수 · 조승목 · 김병목

한국식품연구원 지역특화산업연구단

## 목 차

1. 로하스(LOHAS)의 출발은 웰빙(Well-Being)

2. 로하스시대의 식품이란?

식품과 로하스

식품의 사회문화적 의미

식품은 사회문화의 아이콘

3. 식품산업 패러다임 변화 요인

건강과 행복<여기까지 이번 여름호입니다.>

고령화 사회

세계화와 지역화

정보화 사회

환경 친화

4. 맺음말

※ 3-2 고령화 사회부터 다음호(2009 가을호 통권 제 7호)에 게재됩니다.

## 1. 로하스(LOHAS)의 출발은 웰빙(Well-Being)

로하스(LOHAS)란 Lifestyle of Health and Sustainability의 첫 글자를 나타낸 것으로,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건강과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생활양식’을 말한다. 이 용어는 2000년 미국의 Natural Marketing Institute에서 처음 사용한 말로 그 의미는 일반인들이 느끼기에는 웰빙(well-being)의 개념과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웰빙은 자기중심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로하스는 자기 자신은 물론이요 가족과 사회 그리고 국가

전체를 생각하고 나아가 환경문제, 사회 정의까지도 포함하는 말로 건강을 비롯하여 지속가능한 경제적 성장과 건강한 소비에 가치를 두고 생활하는 사람들의 생활 패턴을 말한다.

인간의 생활은 '먹는다', '움직인다', '생각한다', '잔다' 등의 활동이 반복되며, 그 순환이 건강한 것이 바로 로하스의 기본이라 할 수 있다. 또 자연환경에 대한 배려, 즉 생활이 건강함과 동시에 생활을 둘러싼 자연환경도 건강한 것이 로하스의 실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 로하스 본연의 자세는 각자의 판단으로 자신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요구된다.

정보나 수치에 의한 판단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감각으로 진짜 가치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로하스를 추구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자세인 것이다. 한편 낡은 것과 새로운 것이 조화되고 최첨단 기술과 전통적인 지혜, 새로운 발상과 옛 관습 사이에서 어느 쪽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균형 있게 잘 선택하여 취하는 것, 그것을 자신의 생활에서 실천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로하스의 의미라 볼 수 있다.

로하스는 도시 생활이나 소비 활동을 부정하지 않으며, 편리하고 즐거운 감각과 기술로 근사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만들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는 물론 환경에도 좋은 지속가능한 경제 시스템으로 사회 본연의 자세를 바꾸어가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2006년 한국표준협회에서 대한민국 LOHAS 인증을 창안하여 국내 환경 기술과 산업 수준을 끌어올리는 한편, 소비자에게는 친환경적이며 사회 공헌적인 상품의 확산 및 보급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행복한 사회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기업에는 상품 가치와 이미지 제고를 통해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그림 1. LOHAS 시대의 생활 패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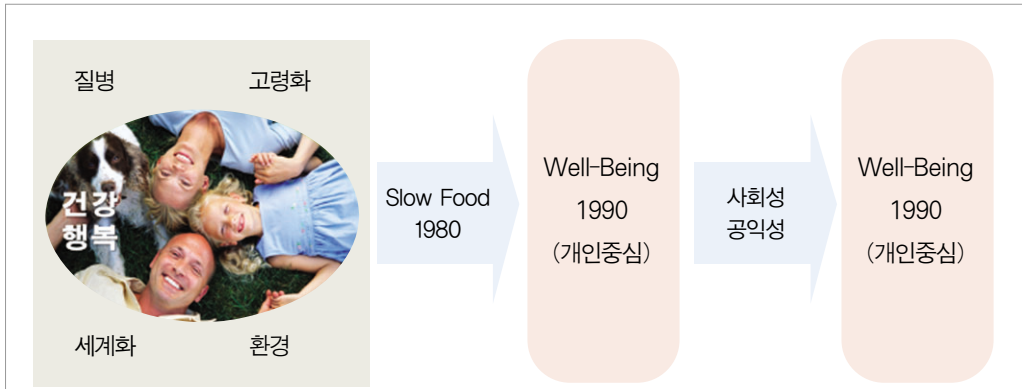


그림 2. well-being과 LOHAS의 개념

건강과 행복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1990년대에 탄생한 새로운 생활 패턴의 개념이 바로 웰빙(well-being)이다. 최근의 산업 고도화는 인간에게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준 반면, 정신적 여유와 안정을 앗아간 면도 많다. 웰빙은 이러한 현대 산업사회의 병폐를 인식하고, 육체적·정신적 건강의 조화를 통해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나타난 새로운 삶의 문화 또는 그러한 양식을 말한다. 1980년대 중반 유럽에서 시작된 슬로푸드(slow food) 운동, 1990년대 초 느리게 살자는 가치를 내걸고 등장한 슬로비족(slow but better working people), 부르주아의 물질적 실리와 보헤미안의 정신적 풍요를 동시에 추구하는 보보스(bobos) 등도 웰빙의 한 형태라 볼 수 있다. 웰빙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웰빙족’이라 부른다.

이들은 ① 고기 대신 생선과 유기농산물을 즐기고, ② 단전호흡·요가·암벽 등반 등 마음을 안정시키는 운동을 하며, ③ 외식보다는 가정에서 만든 슬로푸드를 즐겨 먹고, ④ 여행·등산·독서 등 취미 생활을 즐기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사실 웰빙의 시작은 식품에서 비롯되었다. 1980년대 유럽에서 일어난 슬로푸드 운동은 미국의 맥도날드가 유럽으로 진출한 결과로 발생한 것이다.

1980년대 중반, 로마의 명소로 알려진 에스파냐 광장에 맥도날드가 문을 열었다. 그러나 여기서 제공하는 패스트푸드가 이탈리아의 식생활 문화를 망친다는 위기를 인식하면서 슬로푸드 운동으로까지 이어졌다. 또 1986년 이탈리아 북부 피에몬테 주의 브라(Bra) 마을에서 슬로푸드 운동이 일어났다.

『고라』라는 식생활 문화 잡지의 편집자였던 칼로 페트리니가 이탈리아 아르치(ARCI: 여가 및 문화 협회)라는 단체의 한 부문으로 ‘아르치·고라’라는 미국 음식 모임을 만든 것이 그 시작이다. 아르치 자체는 120만 명 이상의 회원을 수용한 풀뿌리 이탈리아 문화의 부흥 운동 조직이다. 토착 문화와 관계를 기반으로 하며, 이는 슬로푸드의 이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어 1989년 11월 프랑스 파리에서 세계 각국의 대표들이 모여 미각의 발전과 음식 관련 정

보의 국제적인 교환, 즐거운 식생활의 권리와 보호를 위한 국제 운동 전개, 산업 문명에 따른 식생활 양식 파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슬로푸드 선언'을 채택함으로써 공식 출범하였다. 이 운동의 지침은 소멸 위기에 처한 전통적인 음식·음식 재료·포도주 등을 지키고, 품질 좋은 재료의 제공을 통해 소생산자를 보호하며, 어린아이와 소비자들에게 미각이 무엇인가를 교육하는 데 있다. 물론 우리나라의 전통 음식 또한 대표적인 슬로푸드다. 대표적 발효 식품인 김치, 된장, 고추장, 젓갈을 비롯하여 떡국, 한과, 각종 탕류, 꽃감 등 전통 한식은 훌륭한 슬로푸드이다. 이제는 이러한 슬로푸드를 어떻게 세계화하느냐가 큰 숙제로 남아 있다.

## 2. 로하스 시대의 식품이란?

### 식품과 로하스

로하스는 앞서서도 언급하였지만 기존 웰빙의 개념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나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사회는 물론이고 우리 후손에게도 영속적으로 건강한 사회를 물려주고자 하는 운동으로 사회 정의와 친환경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로하스 운동의 핵심은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이요 행복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한가운데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이 있다. 따라서 로하스의 키워드는 우리가 매일 먹는 식품이라고 말할 수 있다. 로하스 시대는 식품의 생산과 유통, 소비 등이 기존의 시스템과 개념으로부터 완전히 새로운 개념으로 접근해야 하므로 식품 산업 전체에는 큰 변화로 다가오고 있다.

따라서 로하스 시대에 식품을 둘러싼 사회의 주요 흐름과 환경의 변화를 자세히 파악할 수 있다면 식품 산업 종사자들의 향후 나아갈 방향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식품과 관련된 우리 사회의 주요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한다.

첫 번째, 식품의 가장 큰 역할은 우리 인간에게 건강과 행복을 주는 것이다. 최근에는 식품을 통한 건강에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에 따라 개인의 체질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식품도 연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식이원성으로 인한 질병 또한 사회문제가 되기도 하고 이제는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우울증, 불면증, 욕구 조절 등 정신 건강까지 식품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연구가 한국식품연구원에서도 이미 시작되었다.

두 번째, 사회 흐름의 변화는 고령 사회에 대한 대비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의 급격한 고령화로 노인의 건강과 복지 등에 전에 없는 많은 예산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으로 10년 안에 큰 사회문제로 다가올 것은 자명한 일이다.

세 번째, 세계화 및 지역화를 들 수 있다. FTA 등으로 세계의 무역 장벽이 무너지고 세계화를 목표로 하면서 동시에 지역화도 함께 일어나고 있다. 세계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지역화에 성공해야 하므로 세계화와 지역화는 상반된 개념이 아니라 중국에는 같은 흐름이라 할 수 있다.

네 번째, 정보화의 급속한 발달을 들 수 있다. 생산에서 최종 소비에 이르기 까지 모든 정보가 노출되는 이력제가 강화되고, 구체적인 식품 정보가 소비자에게 쉽게 전달된다. 따라서 소비자의 구매도 이러한 정보 매체를 통해 이뤄지는 새로운 식품 유통망이 이미 형성되었다.

끝으로 다섯 번째는 환경문제다. 대기오염, 수질오염,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등의 환경 변화는 향후 인간에게 큰 재앙으로 다가올 것으로 많은 학자들은 예측하고 있다. 이미 세계 각국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책을 준비하고 있으며 직접 영향을 받는 식품의 생산과 가공, 유통 등에서도 친환경을 강조하고 있다. 사실 지구는 식품을 만들어내는 거대한 농장인 동시에 공장이기 때문에 지구의 환경오염은 곧바로 식품의 오염을 뜻하는 것이며, 이는 당연한 이치임에도 우리는 가끔씩 잊고 살고 있다.

인간 생활에 있어 아주 중요한 세 가지는 의(衣)·식(食)·주(住)이다. 다시 말해 옷과 음식과 집은 인간이 생활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이다. 그중에서도 생존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식품이다. 농업 과학 기술과 사회가 발달함에 따라 의식주는 생존의 문제에서 벗어나 생활을 위한 요소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과학 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의식주 해결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식량 자원의 대량생산 기술은 지구의 탄생 이후 이렇게 식량이 풍부한 시기가 있었는지 싶을 정도로 풍부한 식량 자원의 공급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맬서스는 인구론에서 식량은 산술(등차)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데 비해 인구는 기하(등비)급수적으로 늘어나므로 자연대라면 과잉 인구에 의한 식량 부족은 피할 수 없으며, 그로 인해 빈곤과 죄악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앞으로 얼마나 더 인구가 증가할지는 모르나 아직 맬서스의 이론은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림 3. 식품산업을 변화시키는 요인들

### 식품의 사회문화적 의미

우리는 살기 위해서 먹지 않으면 안 되며, 살기 위한 한 끼의 의미는 소득수준과 생활환경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허기진 사람에게 한 끼는 그야말로 생존의 의미요, 몸이 허약하여 영

양과 기능성을 추구하는 사람, 맛과 향과 조직감을 추구하는 사람, 이를 초월하여 예술의 경지에 이른 맛과 향과 색을 즐기려는 식도락가들에게는 각기 다른 의미와 문화가 존재하는 것이다. 특히 사회가 발달함에 따라 식품의 사회문화적 의미는 더욱 부각되고 있다. 즉 누구와 일을 하느냐보다 누구와 밥을 먹느냐가 더 중요한 사회문화적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식품의 의미는 매우 다양하다.

즉 1차는 생존, 2차는 영양, 3차는 기호성, 4차는 생리기능성, 그리고 5차는 식도락(art)의 경지까지 인간 사회와 식품은 다양하게 얽혀 있다.



### 식품은 사회문화의 아이콘

인간 사회 속에서 식품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게 된다. 물론 식품은 인간에게 있어서 절대적이지만 식품으로 인한 질병을 일으켜 많은 인간을 위협에 직면하게 하고, 식품을 쟁취하기 위해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키게 한다. 또 종교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불교는 고기를 기피하고, 이슬람은 돼지고기를, 힌두교는 쇠고기를 먹지 않는 전통이 있다.

한편 귀한 손님이 오면 음식을 대접하고, 가까운 사람과 식사하면서 대화하고 어려운 얘기가 있을 때에도 식사를 통해 풀어나가는 등 그야말로 식품은 사회문화를 잘 대표하는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필자는 식품이야말로 인간의 사회문화를 단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아이콘이라 생각한다.

자연 속에서 인간은 하나의 생명체로서 생존하기 위해 영양을 섭취하고, 도구를 사용하고, 집단화된 사회적 동물로 사회를 이루면서 문명 및 문화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변화들에는 인간이 먹는 식품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초기의 인류 발전은 식품과 그 흐름을 같이 한다고 본다. 석기 시대에서 항해 시대에 이르기까지 흐름을 살펴보면 석기 시대에는 간단한 도구로 음식을 자연 채집하여 먹었으나, 청동기 시대에는 농기구를 통해 농업이 시작되어 대량생산과 집단 거주가 일어났다.

철기 시대에는 농업의 규모화와 더불어 효율을 높이는 각종 기기의 개발과 농업 방법이 크게 개선되었다. 그리고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 항해 시대가 전개되면서 유럽은 아시아 및 아프리카와 곡물, 향신료 등의 물물 교류를 통해 이미 만들어진 실크로드를 대체하는 실질적인 세계화의 시초를 이룬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항해 시대는 식품과 문화의 교류가 극대화하면서 인류 문화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노예제도라는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인류발전과 식품	식품은 사회문화의 아이콘	인간사회와 식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석기시대: 자연채집</li> <li>• 청동기시대: 농작시작</li> <li>• 철기시대: 농업의 규모 및 효율 확대</li> <li>• 실크로드 및 항해시대: 식품과 문화의 교류</li> </ul>	Culture Civilization Socie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질병: 전염병, 식중독, 기아</li> <li>• 사교: 음식 선물 및 대접, 모임</li> <li>• 종교: 제물, 금식, 생물의 신격화</li> <li>• 전쟁: 식량을 위한 전쟁, 전시식량</li> </ul>
		

### 3. 식품산업 패러다임 변화 요인

#### 건강과 행복

##### 1) 인간의 사망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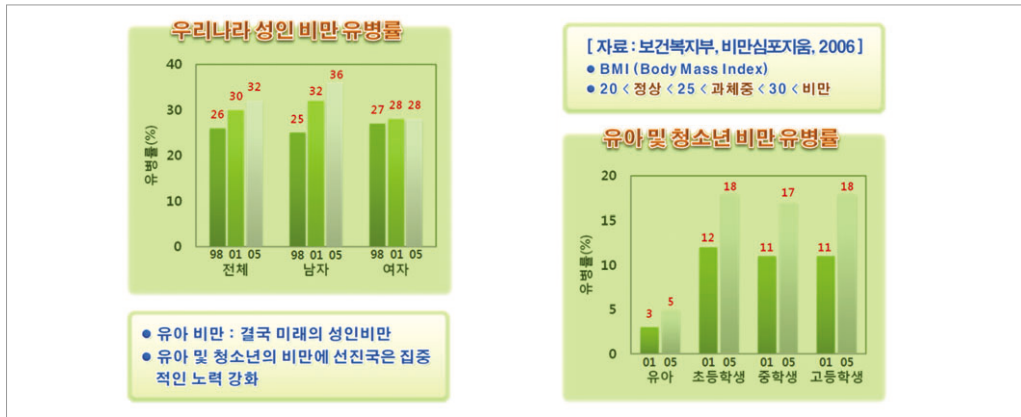
과연 인간은 어떤 질병과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게 되는가? 그리고 나는 과연 어떤 질환으로 고통을 받을까? 두렵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여 몇 가지 데이터를 찾아보았다.

2002년에 발표된 세계 사망 순위의 공식적 자료를 보면 심근경색 및 뇌경색 등 혈관 관련 장애로 인한 사망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 질병은 2030년을 예상하여 조사한 결과도 가장 큰 사망 원인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30년 예상 사망 순위에서 급격히 증가한 것이 당뇨와 위암으로, 이는 대사증후군 및 식습관으로 인한 문제가 대두될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세계의 추세와 유사하나 암의 경우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세계 사망 원인 중 암은 암 종류별로 분류하였으나 우리나라는 모든 암을 통합하여 표시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당뇨, 고혈압성 질환의 경우는 대사증후군과 관련된 질환으로 모두 합칠 경우 암보다 많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다. 이 모든 대사성 질환은 식품으로 충분히 예





보건복지부의 2006년도 비만 관련 심포지움에 따르면 우리나라 비만 유병률은 1998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성인 남자를 중심으로 비만 인구가 형성되고 있다. 보다 큰 문제는 국내의 경우 유아 비만 증가율이 두드러지는데, 이는 미래의 비만 인구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 외국의 경우 비만도가 매우 높은 미국과 멕시코는 유아 비만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학교 체육 시간을 강화하며, 탄산음료 자동판매기를 철수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2) 식품과 정신 건강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건강을 '단순히 질병이나 쇠약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이 완벽한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질병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체 및 정신적인 상태가 완벽하여 사회적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것을 건강의 개념으로 보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의 경쟁 구도 심화 및 고령화로 인해 예전에는 질병으로 거론되지 않았던 스트레스, 우울증 및 불면증과 같은 정신 질환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그 속도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과연 우리나라의 정신 건강 실태는 어떠한가? 각종 데이터를 종합해보면 그 실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불명예스럽게도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1위로 보고되고 있고, 우울증 환자 수는 2001년 37만 명에서 2005년 55만 명으로 4년간 무려 50%나 증가하였으며 국민 3명 중 1명은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한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의 정신 건강 문제 또한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2006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8.3%가 치매, 9.9%가 우울증, 7.7%가 불면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청소년에 대한 문제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나라 중고생의 75% 정도가 소위 성적 향상에 효과가 있다는 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고 있으며, 특히 부작용이 많은 마약성 향정신의학약품 섭취로 인한 정신적 질환과 육체적인 폐해도 크게 우려된다. 이렇듯 정신 건강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크게 부각되고 있지만, 이를 마음의 문제로만 치부하고 정신 건강이 신체 건강과 함께

온전한 건강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인식이 아직 형성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정신 건강의 장애는 발암, 당뇨, 비만 등의 신체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사회 참여가 어렵기 때문에 신체 질환에 비해 가족과 사회의 부담이 크게 나타난다. 각종 자료에 의하면 정신 건강 장애로 인한 우리나라의 사회적 비용은 우울증의 경우 약 3조 856억원, 자살의 경우 2조 153억원, 그리고 치매의 경우는 약 4조 400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것을 가장 안전하고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매일 먹는 식품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다. 『동의보감』을 쓴 허준 선생은 “藥食同源 醫食同源”이라고 말씀하셨고, 기원전 4세기경의 유명한 의학자 히포크라테스는 “Let food be medicine & medicine be food”라고 말했다. 즉 식품이 곧 약이요, 식품으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식품의 정신 건강 증진 효과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초기 단계에 있다. 그러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 분야가 매우 중요하고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 이제는 국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정신 건강은 육체적인 질병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WHO의 통계를 보면 우울증이 있을 경우 천식, 편도염, 관절염 및 당뇨병에도 나쁜 영향을 주어 건강 점수를 더욱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4월 4일을 정신 건강의 날로 정하고 매년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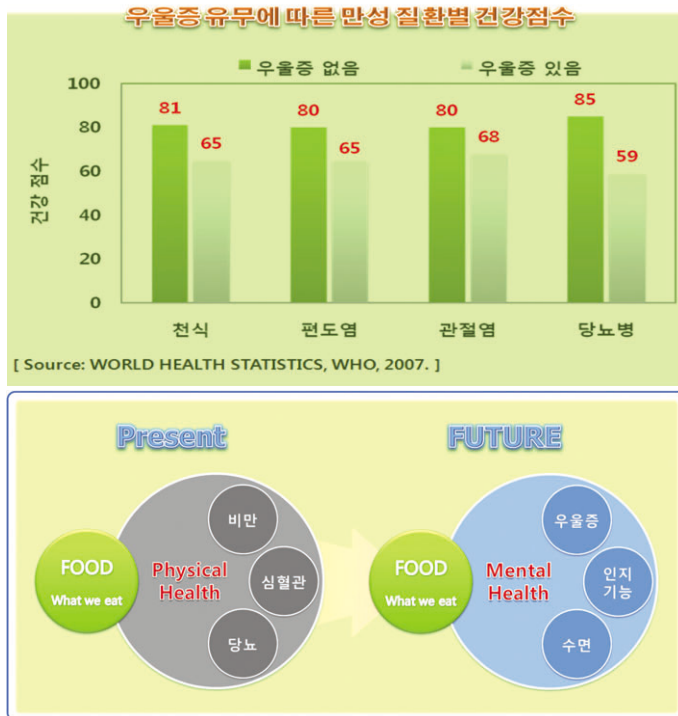


그림 4. 미래의 식품 연구 방향

**참고 자료**

1. 김동수, LOHAS 시대 식품의 의미와 외국의 식품 산업 전략, 한국식품연구원, 2007
2. 강대일, 식품유통연감, 식품저널, 2007
3. 국가 R&D 사업 Total Roadmap(중장기 발전 전략),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및 과학기술부, 2007
4. 국가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 계획,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농촌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 전략, 농촌경제연구원, 2006
5. 국내외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실태 및 시장 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7
6. 김용호·구영본·김관수·성순기·송관정·최근진, 미래 수요 창출형 농림기술개발 전략 연구(제1권 신물종 분야), 농림기술관리센터, 2006
7. 농림부 업무보고서, 농림부, 2007
8. 농림업 주요 통계(<http://ebook.maf.go.kr/2007stat>), 농림부, 2007
9. 농림업 주요 통계 및 농림 통계연보(각 연도).
10. 농수산물유통공사([www.at.or.kr](http://www.at.or.kr)), 2007
11. 보건산업백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6
12. 생활환경산업의 부상과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2006
13. 세계 식품 시장 동향 보고서, Datamonitor, 2007
14. 수입 식품 등 검사 연보, 식품의약품안전청, 2003~2007
15. 식품산업동향, KHIDI 보건산업리포트, 2007
16. 식품의약품통계연보, 식품의약품안전청, 2006
17. 신선편이 농산물 시장 활성화 방안, 한국신선편이농산물협회, 2007
18. 오상봉 등, 한국 산업의 발전 비전 2020, 산업연구원, 2005
19. 외레순 클러스터([www.oresundfood.org](http://www.oresundfood.org)), 농수축산신문, 2007
20. 웰빙 문화의 등장과 향후 전망, 삼성경제연구소, 2005
21. 유기 식품 시장 동향, 한국식품연구원, 2007
22.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07
23. 홈쇼핑 식품 마케팅, CJ홈쇼핑, 2007
24. Agriculture and Agri-food Canada, Canadian Strength, Global Opportunity, Canada's Functional Food and Natural Health Products Industry([www.agr.gc.ca](http://www.agr.gc.ca)).
25. An International Comparison of National Cluster, CPB Report, 2001
26. Data & Trends of the European Food and Drink Industry, CIAA, 2006
27. Elizabeth, J. Challenges in Identifying Food Components Responsible for Health Effects in Whole Foods, Bioactive Food Components, 2005
28. EU Industrial R&D Investment Scoreboard EC, 2006
29. FDA Strategic Action Plan.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07
30. Food for Life, CIAA, 2006
31. Global Food Beverage and Tobacco, Datamonitor, 2006
32. Green, M.R., Ouderaa, F. Nature Pharmacogenomics, 2003
33. Industry Skills Report, Agri-Food Industry Skills Council, 2005
34. Jan Maat, Daniele Rossi, European Technology Platform on Food for Life-The Vision for 2020 and Beyond, 2005
35. LOHAS Market, 2007
36. Memorandum for the Heads of Executive Departments and Agencies, FY 2009 Administration Research and Development Budget Priorities, 2007
37. Netherlands Foreign Investment Agency and Netherlands Food Valley([www.foodvalley.nl](http://www.foodvalley.nl)), 2007.
38. SLOAN TRENDS & SOLUTIONS, INC, 2007
39. The Natural Marketing Institute, 2007
40.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FDA Strategic Action Plan,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07.
41. Where Next in Food?, Promar International, 2003